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The Housework Performance of Husbands in Commuter Marriage and Its related Human Resources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복지정보학과
교수 채옥희**
Dept. of Family Welfare, Wonkwang University
Prof. : Chae, Ock-Hi

<Abstract>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housework performance of husbands that live away from their family and the human resources that may have effects while they do the housework.

The research has been done by the interviews with twelve selected males who are married and live away from their fami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mount of time that the interviewees spend on the housework is less than thirty minutes a day. As for the clothing life area, they seem to depend on washers, cleaners and their wives for their laundry, except for six interviewees that wash their socks by hands. As for their food life area, they either have quick breakfast or do not have breakfast, and they go to a restaurant more than twice a day. Therefore, they tend to depend on services, and they only make the bed and clean the house.

Second, affective components and cognitive components are the factors that make their housework difficult while physical components do not have any great effect. These two components have a great deal of effect on the interviewees' clothing related housework and food related housework.

▲ 주요어 : Commuter marriage, 남편(husband), 가사노동(housework), 수행(performance), 인적자원(human resources)

1. 서론

commuter marriage가 전통적인 가족과는 달리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Gestle & Gross,

1984). 즉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직장을 찾을 수 없을 때 과거에는 부인이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부부가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서로가 원하는 직장을 갖기 위하여 결혼생활의 형태를 몇 일간 별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현재 미국내의 약 100만 쌍의 부부가 commuter marriage를 이루고 각자의 전문직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가정생활을 잘 유지해 간다는 것이다.

commuter marriage는 가정지향성과 직업지향성을 가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주 3일 이상 별거하면서 왕래하는 통근가족(柚井孝子 외 3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지원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주저자 : 채옥희(E-mail : chae@wonkwang.ac.kr)

인, 1993), 비 동거가족, 맞벌이 주말가족(이기숙, 1998), 별거결혼가족(채옥희, 1998)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 해석의 통일치로 원명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commuter marriage와 유사한 주말부부가족의 등장은 서구사회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행정, 교육 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 부인은 남편의 새로운 근무지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김경은·정옥분, 1998), 남편이나 부인 중 한사람은 대도시에 근거를 두게 됨으로서 주말부부가족이나 commuter marriage가 등장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80년대 이후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적 목적보다는 부인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중시되는 가운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commuter marriage는 부인의 취업이 요인이 되어 맞벌이 부부가족의 새로운 적응양식으로 등장하였다(채옥희, 1998). 따라서 commuter marriage는 저소득층에서 흔히 발견되는 단순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맞벌이 주말부부가족과는 달리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중산층에 속하며 대체로 계층적 동일성을 보인다.

commuter marriage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여성들의 과중한 역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자녀들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불편이 없으며, 직장 일에도 몰두할 수 있어서 장점이 많다(柚井孝子 외 3인, 1993).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가사노동 기술이 부족하여 가사노동 일부가 상품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 한 일반적인 남편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그 내용 및 인적자원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는 입지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생활하는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수행 실태 및 가사노동수행 시 투입 요소인 인적자원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남편들의 가사노동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적자원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대 및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실태

commuter marriage 남편은 적어도 혼자서 생활하거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3-4일 혹은 일주일에 1회 부인이 오거나 자신의 부인을 방문한다. 따라서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상 혼자서 혹은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므로

commuter marriage 남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생활수단으로서 필수적인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내용은 그 특성상 여러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왔으나, 국내의 선행연구들(김정희, 1993; 문숙계·정영금, 1988; 임정빈·임혜경, 1992)에서는 가사노동을 크게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관리 및 구매, 자녀양육 및 돌보기와 관련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하위범주로 세분화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사노동을 의식주로 보고 가사노동의 내용을 의식주생활 영역으로 세분하였다. 즉, 의생활 영역에는 빨래와 다림질, 식생활 영역에는 밥하기, 반찬 만들기, 설거지, 그리고 주생활 영역에서는 이부자리 정돈과 청소를 가사노동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가사노동수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남편들의 가사노동수행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수선(1995)은 남편들은 부인에 비하여 가사노동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식생활과 의생활 관련 영역에서 그 수행시간이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성은(1998)은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에 비하여 가사노동참여를 거부하거나 하지못해하는 사람이 87%로 외형적으로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는 전통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Pleck과 Stains(1985)도 남편은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아내(supper-wife)를 기대하거나 부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식드브라·이기영(1999)도 가사노동 중에서도 남성들이 참여하고,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인 식생활에 대해서는 “여성의 일이라거나 자질구레하다”, “할 줄 모른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사노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성은(1998)의 연구에서 40-50대의 남성은 가사노동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높고, 20-30대는 불가피형이나 참여형이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젊은 연령층의 남성들은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에 대해서 성별역할분담 의식이 강하다(下坂智惠·下村道子, 1996).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 태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극적이므로 의식의 전환이 없는 한 commuter marriage 남편의 생활은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젊은 남성 층에서 가사노동의 참여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아 미래에는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 남편의 가사노동수행 시 인적자원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

소 가사노동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주부의 취업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정도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들을 찾는데 관심을 두었으며, 아내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나, 가사노동기구와 설비가 잘 갖춰져 있고, 남편의 연령이 낮은 집단이다(박주희, 1994; 유희숙·두경자, 1999; 이미숙, 1995; 이연숙 외 3인, 1991; 조미환, 1996; 조성은, 1998).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남편들은 모든 가사노동영역에서 자기역할 인식이 낮으며, 남편들이 자신의 역할로 많이 인식하는 과업으로는 자녀 돌보기, 대화하기를 비롯한 자녀관련 과업이다(伊藤セツ·天野寛子, 1996).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기보다는 “간단히 할 수 있거나”, “하면 즐겁기 때문”에 수행한다는 것이다(석드보라·이기영, 1999).

Blair 와 Lichter(1991)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편은 직업역할, 부인은 가정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가정의 오랜 습관이나 시어머니의 태도 등 근접환경이 남성과 여성간의 가사내용과 책임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압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남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원망은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가사노동참여를 방해한다. 한편 가사노동참여는 직업노동 시간의 제약인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정도 등으로 인한 신체적 피곤, 마음의 여유부족 등 정신적 요인들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Ferree(1991)는 남성의 가사참여에서 행동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남성의 심리적인 변화 때문임을 강조하였고, 조미환(1996)은 관념적 장애, 기술부족, 절대적 시간부족, 가사노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으로 야기되는 비선호 장애를 기혼남성의 가사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즉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요인은 자신의 일이 아니며 여성의 일이라는 관념적인 요인과 가사기술 부족과 직업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이며, 특히 가사노동이라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은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일반 맞벌이 가정과 달리 남편도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요,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즉 commuter marriage의 경우 가사노동자를 여성만을 가사노동 담당자로 볼 수 없으며, 앞으로는 남성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사노동은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단순성이란가, 반복성, 복잡성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보다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남성들의 인적자원이 가사노동수행에 시사하는 바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사노동수행에 투입되는 인적자원은 신체적, 인지적, 시간적, 정서적 요소이다(Rose & Esther, 1968). 이 요소들은 가사노동수행에 필연적인 개인적 자원으로서 신체적 요소는 작업시에

사용되어지는 신체의 피로나 고통, 인지적 요소는 지식, 사고과정, 기술, 시간적 요소는 가사노동시간이나 작업자의 시간이며, 정서적 요소는 태도나 흥미, 느낌 등이다. 이론적으로는 가족의 규모가 클수록 가정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다양성은 증가한다. commuter marriage 남편은 일주일에 3-4일 이상은 부인과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므로 스스로의 인적자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즉 가사노동을 통한 인적자원의 증진은 개인이 생활 주체자로서 자립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인과 떨어져서 혼자서 살아가는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의 가사노동 인적자원으로서의 인적자원인 신체적, 인지적, 시간적, 정서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신체적 요소

개인적 자원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요소는 골격, 근육, 신경, 감각, 순환조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개체로서 완성된다.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작용할 때 인간작업 능력이라고 하며, 작업에서 3가지 능력별 신체 동작은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 운반하는 동작, 조작하는 동작, 즉 에너지, 자세, 동작이다(문숙재·채옥희, 1986).

가사노동의 신체적 요소는 에너지 소비나 작업자세, 동작으로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육체적인 에너지소비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피로를 거의 수반하지 않으나 작업자세를 무리하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우에는 피로하게 된다.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은 혼자서 지내게 되므로 심신의 피로하나 응답자의 70%가 그것을 극복하고 있고, 이 결혼형태의 계속을 원하고 있다(柚井孝子 외 3인, 1993).

가사노동은 대체적으로 가벼운 노동이나 보통노동에 속한다. 정원일, 주택손질과 같이 힘든 일들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두 가지 이상의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에 대한 신체적 요구가 증가하고 피로감이 증가하게 된다(Rose & Esther, 1968). 청소, 설거지 등과 같이 단순한 가사노동수행에도 여러 가지 신체동작이 일어난다. 즉, 시각적 동작만이 아니고 팔을 펴고, 구부리고, 올리고, 내리며, 물건을 집고, 운반하고, 끌어당기는 데에는 팔 동작이 필요하다, 또한 구부리고, 엮드리고, 기대고, 앉는 등의 동체동작과 걷고, 움직이고, 서는 데에 필요한 다리동작 등은 거의 모든 가사노동수행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동작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자세는 에너지 소비와 피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문숙재·채옥희, 1986).

한편 적절한 가정설비는 남성의 가사노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조성은(1998)의 연구에서 남성은 싱크대가 낮아 설거지를 하

고 나면 허리가 아프며 설거지가 여성의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기 힘들어서 아내의 담당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남성들은 신체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으나 작업조건과 작업대 등 설비와 용구가 신체조건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되므로 남성들의 신체적 조건에도 부합될 수 있는 적절한 기구와 가정설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인지적 요소

가사노동수행 시 요구되는 인지적 요소는 가사노동자의 지적 활동으로서 가사노동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이 요소는 지식의 활용이나 목표의 설정, 계획수립, 작업 중의 주의력이나 진행중의 적절한 판단, 의사결정에 의한 작업제어, 좋은 습관이나 기능의 숙련, 계발 등을 포함한다.

가족의 요구 파악, 다양한 정보수집, 계획, 의사결정, 수행의 적시성, 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지적 요소는 가사노동의 질을 좌우한다. 가사노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지식을 증진시킨 가족원은 스스로 인적자원의 공급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나 실제로는 인적자원이 크게 증가된 것이다(이기영 외 3인, 1994).

commuter marriage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혼자 지내면서 배우자가 해왔던 새로운 일에 대해서 배우기도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다시 익히기도 한다(Gerstel & Gross, 1984). 맞벌이 주말가족에서도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으로 여성이 직장일과 가사 일을 모두 잘 해내는 슈퍼우먼이기를 바라는 기대는 줄어들고, 가사분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이기숙, 1998).

柚井孝子 외 3인(1993)의 연구에서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기술을 터득하고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주의하면서 본가에 가거나 동거할 때에는 부인을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Pleck 과 Stains(1985)는 일반적으로 남편의 가사기술수준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남편의 가사참여가 가장 낮은 영역은 부엌과 관련된 부분이다(문숙재·조성은, 1995). 이는 부엌일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꺼리는 전통적 의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음식의 복잡한 조리방법과 이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이 일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이미숙, 1995).

채옥희(1998)는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의 25%가 가사노동기술이 전혀 없어서 임지에서 하숙을 하거나 파출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남편들은 부인의 부재 시에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가정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성은(1998)은 어린 시절에 가사노동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 후 바로 가사노동 참여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남성들은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지적 측면에서 가사노동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ommuter marriage 남편들 역시 어린 시절에 가사노동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결혼이후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우지 않은 한 가사노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할 것이다.

3) 시간적 요소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어느 분야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시간적 요소가 가사노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남편은 직업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부인을 대신해서 가사를 수행하거나 자녀를 돌봐줄 시간이 없다(이기영·이승미, 1994; 임정빈·임혜경, 1992; 허경옥, 1994).

Blair와 Lichter(1988)는 동거 및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여성은 주당 평균 33시간의 가사노동을 하였으나 남편은 평균 14시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의 1/3정도이다(Pleck & Stains, 1985).

허경옥(1994)은 부인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비취업 상태에 있다해도 가사노동을 똑같이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기숙(1998)의 연구에서 보면, 맞벌이 주말가족 부인들이 개인의 자유시간이 많다는 것을 장점으로 드는 것과는 달리 남편들은 이러한 장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주말가족 부인들에 있어서 남편과 관련된 가사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어린 자녀의 존재나 자녀수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을 증가시키며(조미환, 1996; 최수선, 1995), 반면에 부모세대와 동거할 경우에 부모가 가사를 조력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작용하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석드보라·이기영, 1999; 채옥희, 1997).

허경옥(1994)은 특히 미래에는 비 전형적인 근무 방법인 아침저녁 순환 근무, 주 4일 근무, 또는 재택근무가 보편화 될 것이므로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가용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伊藤セツ와 天野寛子(1994)도 전업주부의 남편들이 주당4시간46분,시간제주부의 남편들이 4시간42분, 완전고용주부의 남편들은 6시간 41분을 가사노동수행에 보낸다고 하고,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평일에는 10분에서 20분정도, 토요일에는 1시간30분정도이며, 휴일에는 2시간30분에서 40분정도의 시간을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최소 33분(이기영 외 3인, 1994)에서 최대 3시간 28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주희, 1994). 선행연구(문숙재, 1991; 조미환, 1996; 최수선, 1995)를 종합해 보면, 남성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은 서서히 증가추세에 있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례	연령		거주지역 및 거주형태		직업		결혼지속기간	별거왕래기간	본가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1	53세	50세	익산임대	서울자가	교수	교수	26년	10년	서울
2	47세	42세	익산임대	서울자가	교수	대학직원(사무관)	9년	9년	서울
3	60세	52세	익산임대	서울자가	교수	중학교장	25년	20년	서울
4	43세	40세	서울자가	전주임대	공인회계사	교수	12년	12년	서울
5	39세	35세	서울자가	익산임대	교수	교수	5년	2년	익산
6	56세	53세	익산자가	한산관사	공무원	고등학교장	25년	10년	익산
7	42세	39세	익산자가	서울임대	교수	회사(건축사)	14년	1년	익산
8	47세	45세	전주임대	서울자가	공무원	교수	11년	11년	서울
9	61세	55세	서울자가	익산임대	교수	교수	27년	25년	서울
10	49세	47세	천안임대	전주자가	교수	교수	14년	10년	전주
11	31세	30세	전주임대	서울자가	군의원	회사원(통역사)	1년	1년	전주
12	39세	37세	춘천임대	익산자가	교수	교수	10년	3년	익산

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휴일에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2배로 증가하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데 연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commuter marriage 남편은 주 3일 이상 가사노동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일반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시간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가사노동은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므로 가사노동시간이 적을 때 commuter marriage 남편의 생활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식사는 때에 맞추어 하고 있는지, 의생활이나 주생활영역에서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지 등 여기에 소요되는 가사노동시간은 commuter marriage 남편의 생활의 질을 확인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부인들과 함께 하는 주말에는 commuter marriage 남편이나 자녀들은 가사노동에서 해방이나 된 듯한 느낌으로 전혀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채옥희, 1998)를 참고로 할 때, 부인과 떨어져 있을 때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4) 정서적 요소

가사노동 인적자원 중의 한 요소인 정서적 요소는 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개인적인 감정 즉 태도나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과 관계가 있다.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감정, 태도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는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성은(1998)은 일반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참여를 거부하거나 하지못해 하는 사람이 87%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여성들이 해줄기를 바라며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주부가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체자이고 남편은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하기보다는 부인이 가

사노동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소극적인 협력자일 뿐이라고 하듯이(유희숙·두경자, 1999) 맞벌이 가정 남편들도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일로 여긴다.

공미혜(1994)는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성들만큼 그런 일을 함으로써 만족해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도 13%수준이며(조성은, 1998), 맞벌이 가정 남편들 역시 가사노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조미환, 1996). 특히 일본의 35세미만의 남성들은 TV요리채널을 자주 보며 요리하는 것이 즐겁고, 구매 시에는 스트레스도 해소된다(下坂智恵·下村道子, 1996),

일본의 근로자 남성들은 조리, 세탁, 시장·은행·관공서 일 등 여러 과업에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이기영 외 3인, 1996).

한편 남성이 선호하는 가사노동은 쉽고 즐거우며 일단 끝나면 자주 되풀이되지 않는 일들이며(공미혜, 1994), 음식 만들기, 청소, 설거지 등의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여성중심형의 가사노동을 기피한다(김양호·김태현, 1998; 송혜림, 1988; 유희숙·두경자, 1999; 이연숙 외 3인, 1991; 허경옥, 1994).

여성중심형 과업은 대부분 매일 행해져야 하는 일로 미루거나 시간이 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며, 반복적인 성격을 띄는 가사적인 일이고, 남성중심형 과업은 자녀와 놀아주기, 과제를 도와주기, 주생활영역, 화초 가꾸기 등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것들로 여가적 특성을 띄는 활동이며, 가끔씩 해도 되는 일들이다. 그러나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은 가사노동수행 내용에 한계가 있으며, 가사노동의 태도가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한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 가사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사노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줄 가족도 없으므로, 이런 경우 극히 여성 중심적인 일인 의생활이나 의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결실을 하거나 외식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때로는 가사노동을 귀

짧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 요소는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맞벌이 가정의 남편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의 정의에 맞는 commuter marriage 부부 중에서 남편에 초점을 두었으며 입지에서 하숙을 하거나 파출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남성들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commuter marriage 생활의 조건을 갖춘 조사대상자를 찾아 개별 면접하는 어려움 때문에 전북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연구자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소개받아 20명을 선정하였으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12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시기는 2001년 5월 1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명 정도로 대상자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런 대화방식으로 직접개별 면담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조사내용은 가사노동을 의식주생활영역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가사노동수행 시의 투입요소로서 신체적 요소는 가사노동수행에 따른 육체적 피로나 불편함 등, 인지적 요소는 가사노동수행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 등을, 시간적 요소는 실제로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서적 요소는 가사노동수행 시의 감정으로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질문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대단위의 실증적인 검증보다는 소규모이지만 가사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변화한 남성집단을 찾아 그들이 갖는 공통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심층연구법을 채택하였다. 면접 자료분석에서 주된 관심사는 혼자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어느 정도이며, 가사노동수행 시의 개인적 자원으로서 인적자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사례는 서울을 본 거주지로 하고 남편의 직장이 원인이 되어 남편이 본가를 떠나서 별거결혼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7사례(사례 1, 2, 3, 8, 10, 11, 12)이고, 부인의 직장이 원인이 되어 부인이 본가를 떠나간 경우는 5사례(사례 4, 5, 6, 7, 9)이다.

별거하면서 왕래하고있는 기간은 1-3년이 4사례(사례 5, 7, 11, 12)이며, 9-12년이 6사례(사례 1, 2, 4, 6, 8, 10)이고 20-27년이 2사례(사례 3, 9)이다. 5사례(사례 4, 5, 6, 7, 9)를 제외하고는 부인들이 본 거주지에 살면서 가정을 유지해가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모든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의 가사노동수행 실태

본 조사대상자들은 입지에서 혼자서 아니면 입지로 떠난 부인 대신에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만이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미숙·유안진(1997)이 밝힌 전문직 여성의 남편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아주 낮고 특히 여성 중심형 가사노동을 기피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와는 달리 여성중심형의 가사나 남성중심형의 가사를 구별없이 수행해야하는 입장이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가사노동을 의식주생활의 가사노동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영역의 가사노동수행 실태

남성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연구되어온 식생활 중에서 밥하기와 설거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침식사로 빵이나 찌리얼, 그리고 우유 등의 음료수를 먹는 경우는 2사례(사례 1, 6), 밥을 먹는 경우는 6사례(사례 2, 3, 4, 5, 9, 10),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4사례(사례 7, 8, 11, 12)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경우 간단하게나마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전부터 혼자 자취를 해서인지 밥짓는것은 자연스럽고 잘 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은 지어먹고 저녁식사도 되도록 집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연구실에서 늦게 오거나 동료들과 어울리면 점심이나 저녁식사는 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례 2, 3, 4, 9, 10). 평소에 TV요리 채널에 관심을 가져 보지만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사례 2, 3, 4, 5). 이렇게 산 세월이 20년인데 뭐 불편한지도 모르겠고, 식사도 아침만 집에서 해결하면 나머지는 밖에서 먹으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사례 3, 9).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아침밥도 챙겨주고, 달걀 후라이 정도는 하게 됩니다. 또 설거지도 하고....., 부인이 주말에 와서 도와줍니다(사례 4, 5).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주말에는 왜 해요. 우리 집 남자들은 주말이면 가사노동에서 해방됩니다(사례 9).”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녀와 동거하는 젊은층의 남편들은(사례 4, 5) 가사노동에 적극적이지만 가사노동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는 35세미만의 남성들이 구매,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下坂智惠·下村道子(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들은 음식 만드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

아서 TV요리 채널을 보아도 실제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한다(사례 2, 3, 4, 5). 특히 나이가 많은 남편들(사례 3과 9)은 가사노동을 마지못해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가사노동이 싫고 구속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룸에서 간단하게 생활하고 아침은 먹지 않지만 점심과 저녁은 사서 먹으니까 편리하고, 처음에는 사먹는 식사에 대해서 싫증이 나기도 했지만 요즈음은 잘 적응하고 있고....., 설거지 할 것이 있어야지요(사례 11, 12). 외식하는데 영양과 위생적인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당을 전전하면서 동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는데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식생활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사례 1, 3, 6, 9, 10). 아침식사 후 설거지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사례 3, 4, 5). 저녁때의 가사노동은 아침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밥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전기 밥솥으로 하고.....(사례 2, 3, 4, 5). 반찬은 부인이 해 준 것 만 먹게되고, 만들어 보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사례 2, 3, 4, 5, 6, 9, 12).』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모두 외식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저녁식사에는 술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영양이나 위생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식생활영역의 가사노동수행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식생활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남성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의생활영역에서 가사노동수행 실태

의류산업과 세탁 서비스업의 발달로 의생활의 사회화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의 가사노동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의류세탁이나 수선과 다림질을 세탁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정지영, 1990)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의 의생활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탁할 때 양말은 주로 손으로 매일 빠는 편이고, 양복이나 와이셔츠 등은 세탁소에 맡기는데, 비용은 한 달에 3 만원 정도 듭니다(사례 1, 2, 4, 5, 6, 7). 자녀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세탁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세탁기로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게 됩니다. 양복과 와이셔츠 다림질은 세탁소에 맡기고요(사례 4, 5). 내가 빨래할 필요가 없어요. 와이셔츠나 양말은 집에서 올 때 3-4장씩 준비해 가지고 근무지로 와서 입으면 되고, 본가로 갈 때 양말을 포함해서 모든 세탁물은 집으로 가지고 가니까요. 다림질도 할 줄 모르지만 다리미도 없어요(사례 3, 10, 11, 12). 양말이나 와이셔츠, 빨랫감은 그냥 모아 놓으면 아내가 와서 다 빨아 놓고 갑니다. 물론 다림질도 다 해주고요(사례 8, 9).』

이처럼 남편들은 자신의 양말을 손으로 빨고 있다는 사례가 6사례이고 양말조차도 빨지 않는 경우가 6사례(사례 3, 8, 9, 10, 11, 12)나 되었다. 이는 조성은(1998)의 연구에서처럼 손빨래를 한다는 사례는 없다고 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세탁기로 세탁을 한다해도 다림질은 세탁소에 의존하고 있다. 짧은 층을 제외하고는 본가에 가서도 전혀 세탁이나 다림질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최수선(1995)연구에서 우리나라 남편들은 부인에 비하여 의생활관련 영역에서 그 수행시간이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밝힌 것처럼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의 의생활 영역도 세탁소에서 이루어지거나 부인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생활 영역에서 가사노동수행 실태

commuter marriage 남편의 특성상 주생활 영역에서는 청소와 이부자리 정돈으로만 한정시켜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주생활 영역에서 가사노동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진다(이미숙·유안진, 1997).

『아침에 일어나면 침구정리를 하고, 방과 거실은 깨끗이 쓸고 닦고 하죠. 부인이 마련해준 청소용구가 좋아서인지 걸레질도 쉽더라고요(사례 1, 2, 3, 4, 6). 2-3일에 한번 정도 청소기로 거실과 방을 청소하지만 물걸레질은 않습니다(사례 5, 7). 집안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부인이 와서 쓸고 닦고 합니다(사례 8, 9, 11). 침대생활을 하고 있고, 혼자 사는데 뭐 이부자리 정돈할 것도 없고 청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시간도 없고...(사례 10, 11, 12).』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가사노동의 영역보다는 주생활 영역에서 가사노동 수행정도가 높다. 청소는 혼자 사는 기간이 거의 10년 이상 경과한 사람들로서 청소용구나 청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인과 같이 생활을 할 때에도 청소는 자신이 담당한다. 이는 조성은(1997)의 연구에서 음식만들거나 설거지보다 청소는 청소기 사용으로 일이 좀더 쉽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청소를 하지 않는 사례들(사례 5, 7, 8, 9, 10, 11, 12)의 경우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고, 청소하는 것이 싫고,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청소와 이부자리 정돈과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ommuter marriage 남편들 중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나 침대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부자리 정돈이나 청소 등의 수행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마루를 물걸레로 닦거나 빗자루로 쓸거나 할 때는 허리가 아프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이나 거실 등의 청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남편들이 그 일을 하려 할 때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수행 시 인적자원

1) 신체적 요소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신체적 요소인 자세나 에너지, 동작 등이 요구되나 본 조사의 초점은 신체의 동작과 자세에 초점을 두었다.

본 사례의 대부분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육체적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물걸레로 청소할 때에 허리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밥하거나 설거지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사례 1, 8, 9). 설거지 할 때는 싱크대가 너무 낮은 느낌이 들고, 청소 할 때 구부리고 비질하고 걸레질 할 때 힘듭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가 아프죠(사례 1, 3, 4, 5, 6). 숙소에 돌아오면 피곤하여 모든 것이 하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기에 바쁘고,.....(사례 11). 아무래도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인 것 같아요. 강한 힘이 필요한 노동도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해본 일도 아니고,.....(사례 1, 2, 7, 8, 9, 10, 11).」

남성은 가사노동수행 시 신체적으로는 힘들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가사노동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싱크대가 낮고 청소용구가 비과학적이라서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의 가사참여를 유도하고 능률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구나 설비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인지적 요소

가사노동을 노동자체를 축적할 수 없으며 대체에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되어 인지적인 자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가사노동에 대한 기술은 기혼남성들에게는 만족스런 경험을 주고 이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자신감을 줄 뿐 만 아니라 자기강화를 시켜준다(조미환, 1996) 그러나 다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성들은 가사노동에 대해서 거부적이며 인지적인 자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밥하고 반찬 만드는 것은 해 본 적도 없고,.....(사례 1, 6, 7). 부인과 떨어져 생활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양말 빠는 것 정도입니다(사례 7, 8). 할 수 있는 거요? 밥은 잘하는 편이고, 우유 사오는 것, 달걀프라이와 라면 끓이기 정도,.....(사례 2, 3, 4, 5, 10, 11). 청소기는 사용할 줄 알죠(사례 1, 2, 3, 4, 5, 6, 7). 세탁기로 빨래하고, 식기세척기로 설거지도 하고,.....(사례 4, 5).」

본 사례 중 6사례(사례 2, 3, 4, 5, 10, 11)는 밥은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밥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3사

례(사례 1, 6, 7)나 되었다. 반찬을 잘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저 본가에서 해오거나 부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잘 사용하는 사례는 2사례(사례 4, 5)이며, 이들도 손으로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세탁이나 설거지, 음식 만드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으나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거나 세탁기 와 청소기 등 기계를 사용하는 가사노동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혼자 생활하는 남편들은 가사노동에 대해 관심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경제적인 부담과 건강, 위생적인 면에서 우려된다. 미래의 고령화사회와 맞벌이 증가를 대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가사노동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3) 시간적 요소

가정생활 속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소비하며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들은 주거공간에서는 단순히 수면만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은 거의 할애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위한 시간에 쫓겨서 가사노동을 수행할 시간도 없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관심도 없고 대부분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혼자서 생활하게 되니까 늦게 돌아와서 잠자고 출근하기 바쁘는데 뭐 가사노동 할 시간이 없죠(사례 3, 6, 8, 9, 10, 11, 12). 양말 빠는 것도 노동인가요? 이부자리 정돈, 청소 등 한 10분 정도면 끝나는데,.....(사례 1, 2, 7, 10). 아침에 자녀들 학교 갈 준비해주고, 출근하기 바빠서 아침에는 정신없이 출근하지만, 시간이 되는대로 집안정돈과 청소하는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하나 봅니다(사례 4, 5).」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 자신의 양말을 세탁하거나 이부자리를 정리 정돈하는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30분 미만이다. 이는 이승미(1994)의 연구에서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은 30분 이하가 39%로 가장 많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특히 한국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1일 평균 40분에서 1시간정도이며 주로 집안 수리나 자녀양육에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공미혜, 1994)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자서 임지에서 생활하는 남편들이기에 30분 미만의 가사노동시간은 필수적인 시간임을 알 수 있으며, 일반 기혼 남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은 임지에서 생활하면서 숙소는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거나 친구들과의 어울림으로 집에 오면 잠

자는 곳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commuter marriage 부인들이 자신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임지에서는 하루에 2-3시간씩 가사노동을 하고 본가에 오게되면 하루에 12-13시간씩 슈퍼우먼처럼 가사노동을 하는 채옥희(1998)의 연구와는 대조를 이룬다.

4) 정서적 요소

일반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참여를 거부하거나 하지못해 서하는 남편이 87%이며, 남편의 연령분포도 40-50대가 가장 많다고 밝힌 조성은(1998)의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4-5일간을 혼자서 자신의 책임으로 생활하는 남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나 감정은 자신이 하지 않아도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더 거부적인 경향을 보인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도 싫은데, 자신이 먹고살겠다고 주방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처량한 느낌이 듭니다(사례 7, 8, 9, 12). 남성이 요리하는 TV 채널을 보면 신기하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는 요리하는 것이 전문이니까 해야하지만.....(사례 1, 7, 8, 9, 10). 요리 TV 채널을 보면서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어렵고 복잡해서요(사례 2, 4, 5, 6). 양말을 세탁하는 것도 싫고..... 도무지 자신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사례 3, 8, 10, 12). 청소나 이부자리 정돈처럼 반복적인 것들은 하기 싫은 기본입니다.(사례 6, 9, 10, 11, 12).」

위와 같이 남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가사노동은 부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관심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사노동을 하고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처량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는 차성란(1998)이 밝힌 것처럼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반복성, 구속성, 폐쇄성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TV의 요리채널도 끝까지 본적이 없으며, 전문가인 남성만이 요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결과는 TV의 요리채널을 자주 보며, 요리를 만드는 것이 즐겁다(下坂智恵·下村道子, 1996)는 일본의 젊은 남편들과는 대조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들이 배우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요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여가처럼 즐겁게 가사노동에 참여하게 하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commuter marriage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주 3일 이상 별거하면서 왕래하는 부부들의 가족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에 맞는 12사례

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수행 실태 와 가사노동수행 시에 투입되는 남편들의 인적자원인 신체적, 인지적, 시간적, 정서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대상자인 commuter marriage는 남편의 직업이 주요인이 되어 남편이 임지로 떠나게 된 경우는 7사례이고, 부인의 직업이 요인이 되어 근무지에서 생활하는 부인은 5사례이다. 남편들이 부인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실태와 가사노동수행 시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 내용중 식생활에서는 아침식사도 하지 않는 경우가 4사례, 빵이나 씨리얼을 먹는 경우가 2사례이다. 밥을 먹는 경우는 6사례이지만 단순히 밥만을 지을 뿐 반찬 등은 본가에서 가져오거나 부인이 해놓은 것만을 섭취하는 정도이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대부분이 외식을 하고 있다.

의생활에서는 양말을 손으로 매일 세탁하는 6사례와 세탁기를 돌리는 2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의류나 와이셔츠 등의 세탁이나 다림질은 거의 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본가로 세탁물을 가지고 간다.

주생활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청소나 이부자리 정리정돈을 매일 수행하는 경우는 5사례이고, 청소기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2사례이며, 전혀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5사례이다.

둘째, commuter marriage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가사노동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시간 부족, 기술부족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남성의 가사노동수행 시의 인적자원과 관련시켜 보면, 신체적 요소는 청소나 설거지를 할 때 허리가 아프다는 것으로 보아 가사 용구나 설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인지적 요소는 성장과정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해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가사노동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간적 요소는 직업생활과 동료들과의 어려움으로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가사노동을 한다고 해도 30분 미만이다. 정서적 요소도 가사노동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라서 하기 싫은 기본이고, 자신이 해야 할 노동으로 여기지도 않는 경향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commuter marriage 남편이 생활하는데 가사노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미미하다. 특히 의생활 영역은 내의류나 와이셔츠 등은 세탁기나 세탁소 또는 부인에게 의존하며, 식생활에서는 하루에 2회 이상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 주생활에서만 이부자리 정돈과 청소를 하는 경향이나 침대생활을 하는 사람은 청소와 이부자리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은 사회적인 전문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생활에서는 미미하나 남편 스스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수행 시의 투입요소인 인적 특성 중 정서적, 인지적 요소들이 가사노동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이 요소들은 특히 식생활영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서적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가처럼 즐겁게 요리하는 TV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가사노동의 인지적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남성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사노동수행을 유도하는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commuter marriage 남편 12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가사노동수행 내용이나 수행 시의 인적자원,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포함시켜 통계학적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1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15일

【참 고 문 헌】

- 공미혜(1994). 과연 남성은 변하고 있는가?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 노동에 관한 의식변화와 참여. 여성연구논집 5, 123-141.
- 김경은·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김양호·김태현(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81-94.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37-51.
-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_____. 채옥희(1986).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 _____. 정영금(1988). 도시주부의 가정생산시간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103-118.
- _____. 조성은(199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39-150.
- 박주희(1994). 취업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성별 분리 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드보라·이기영(1999).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 저항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71-185.
- 송혜립(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숙·두경자(1999).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23-134.
- 이기숙(1998). "맞벌이 주말가족의 일반적 특성: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주말부부의 가족.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43.
- 이기영·이승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_____. 김의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5.
- _____. 김의숙·이연숙·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여부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 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유안진(1997).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 대한가정학회지 35(1), 205-220.
-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지 3(1), 23-32.
- 이연숙·이순형·조재순·유가효(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
- 임정빈·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261-278.
- 정지영(1990).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희(1999). 노인가정의 가사노동관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14-33.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채옥희(1998).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53-166.
-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3.
- _____. (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홍승아(1998).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노동력재생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1-22.
- 兵谷萬美子(효오타니만미코)(1987). 듀얼 キャリア夫婦. 東京: 家政教育社.
- 山田正喜子(야마다마사요시코)(1987). 美國の ビズネス エリツ. 東京: 日經新書.
- 伊藤セツ・平野寛子(이토세츠·아마노히로코)(1994).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光生館.
- 柚井孝子・岡村清子・長津美代子・三善勝子(유우쇼우다카코·오카무라기요코·나가쓰미요코·미요시가쓰요)(1993). 共働き 家族. 東京: 家政教育社.
- 下坂智恵・下村道子(시모사카치에·시모무라미찌코)(1996). 男性の 家事行動に 對する 餘暇としての 意識. 日本家政學會誌 47(2), 121-129.
- Blair, S.E. & Johnson, M.P.(1992). Wives perception of the

-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Aug.), 570-581.
- Blair, S.E. & Lichter, D.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Coltrane, S. & Ishii-kuntz, M.(1992). Men's housework: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Feb.), 43-57.
- Ferree, M.M.(1991).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marriage: Dimensions of vari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158-180.
- Gerstel, N. &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A study of work and family*. NewYork: Guilford press, 183-202.
- Groves, M.M. & Horn-Winged, D.M.(1991). Commuter marriage: Personal, family and career issue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5(4), 212-217.
- Pleck, J.H. & Stains, G.L.(1985). Work schedules and family life i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6, 61-82.
- Rose, E.S. & Esther, C.B.(1968). *Work in the home*. NewYork: Jone Wiley & Sons, 5-8.